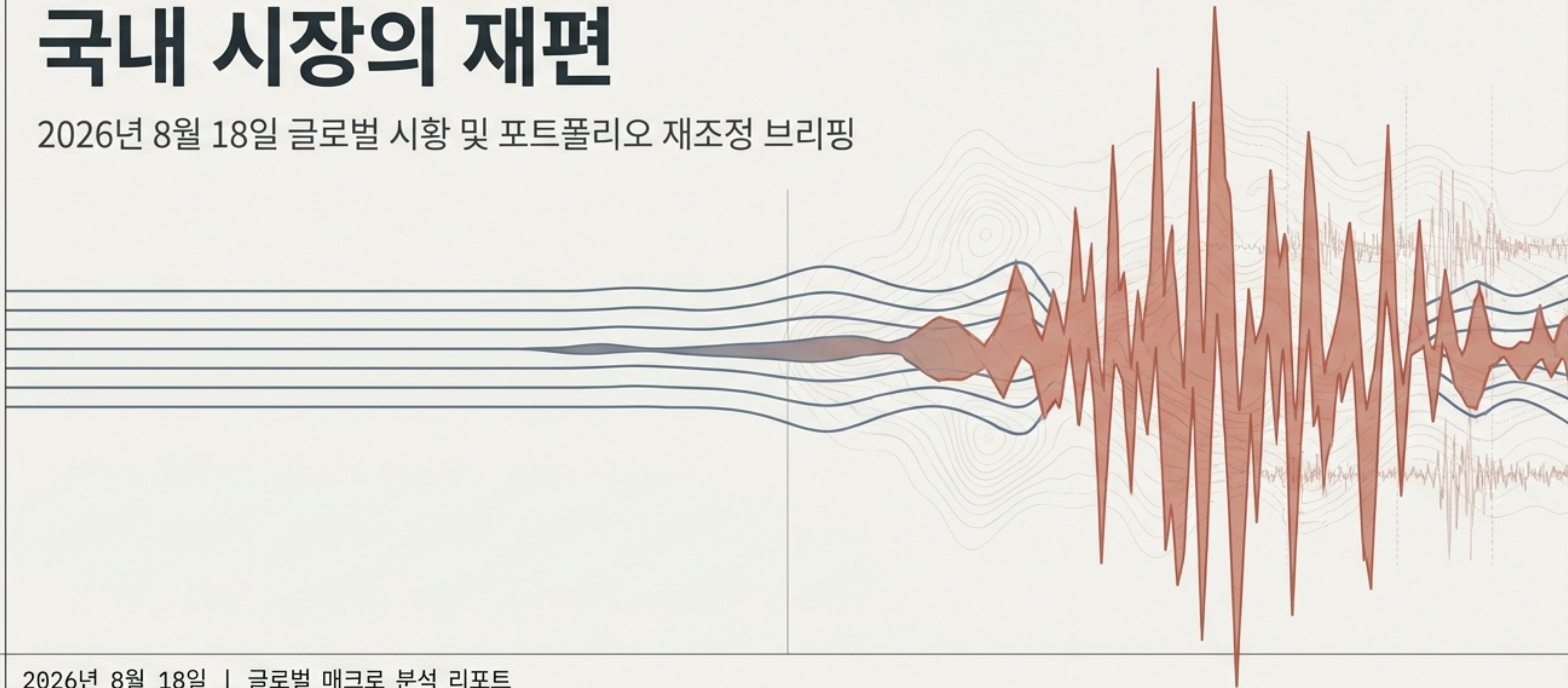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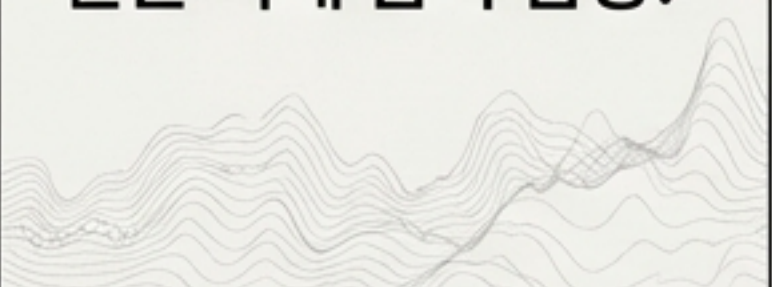
거시경제의 연쇄 반응과 국내 시장의 재편

2026년 8월 18일 글로벌 시황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 브리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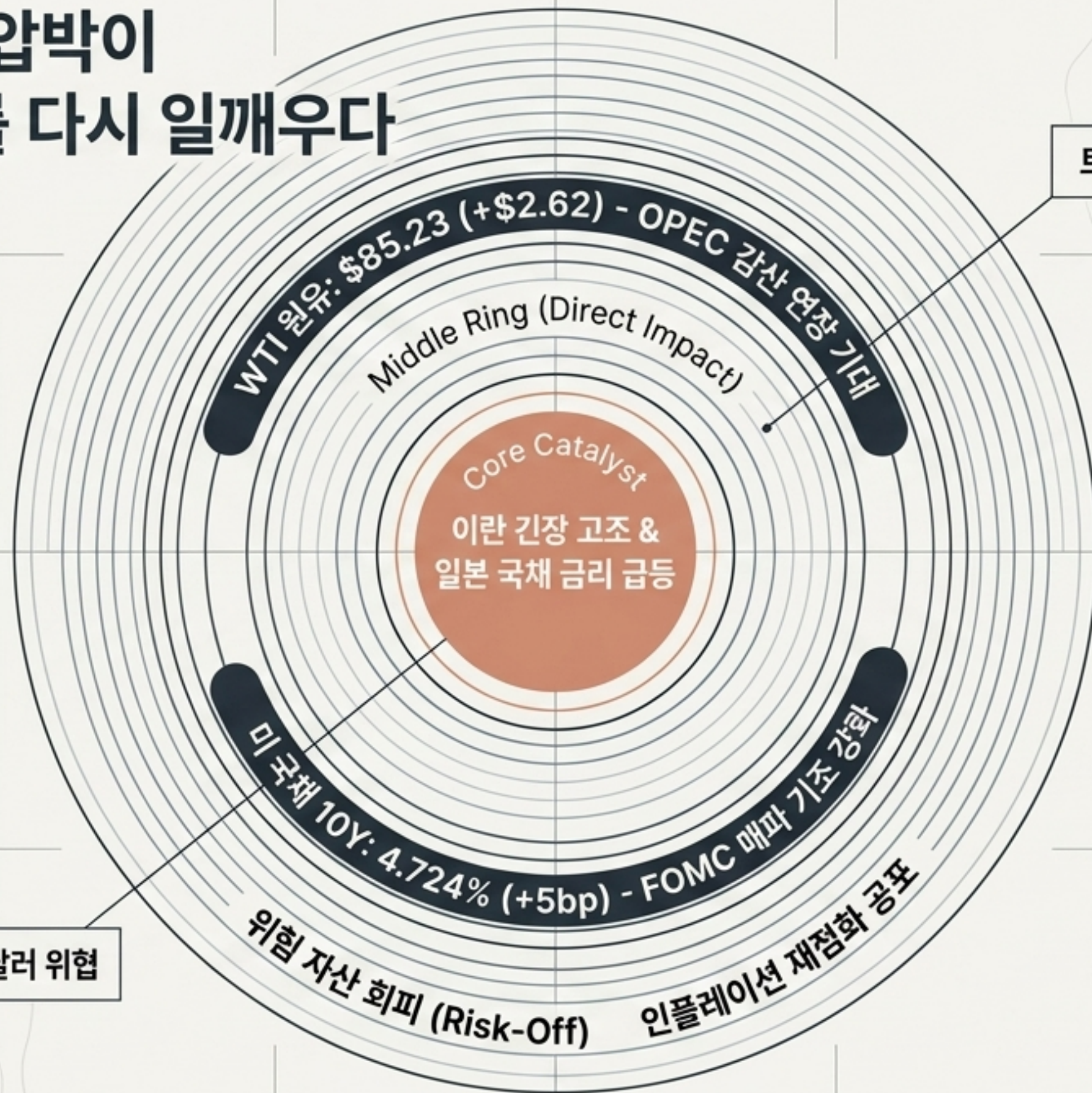
2026년 8월 18일 | 글로벌 매크로 분석 리포트

인플레이션 공포가 촉발한 연쇄적인 글로벌 자산 이동

Step 1: The Catalyst (원인)	Step 2: FICC Shock (파급)	Step 3: Global Divergence (분화)	Step 4: Local Capitulation (충격)
중동 긴장 및 일본 국채 금리 급등. 	WTI 원유 \$85 돌파 ↗ & 미 10년물 국채 4.7% 도달.	안전자산(금, 비트코인) 및 지역별 증시(유럽/중국) 랠리 vs. 기술주 약세.	외국인/개인 매수에도 기관 1.2조 원 매도로 KOSPI 6,800선 후퇴.

유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이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극대화하며,
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.

중동 불안과 금리 압박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일깨우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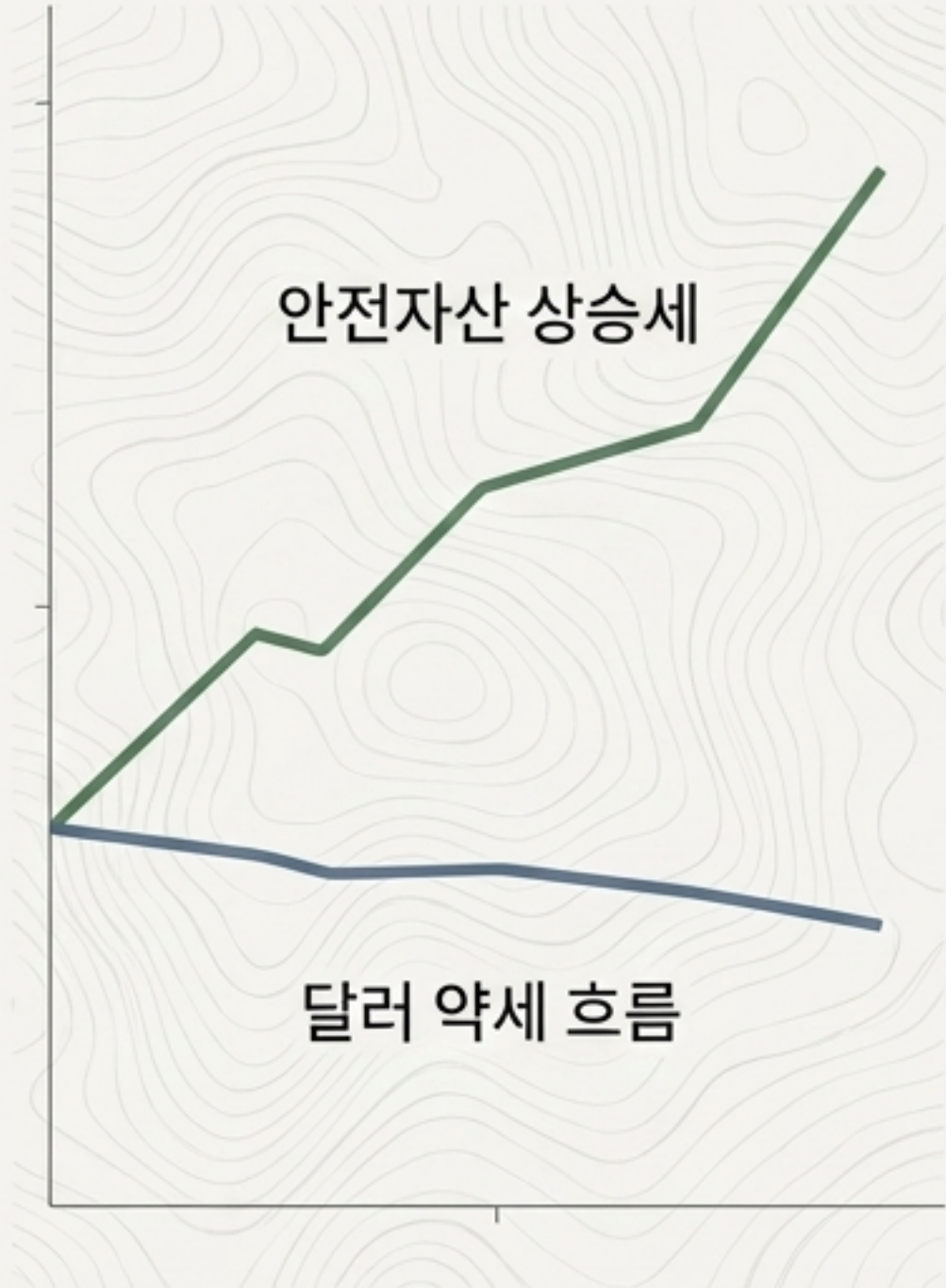
트럼프발 인플레 공포 재점화

국제유가 13주 하락 마감 후 90달러 위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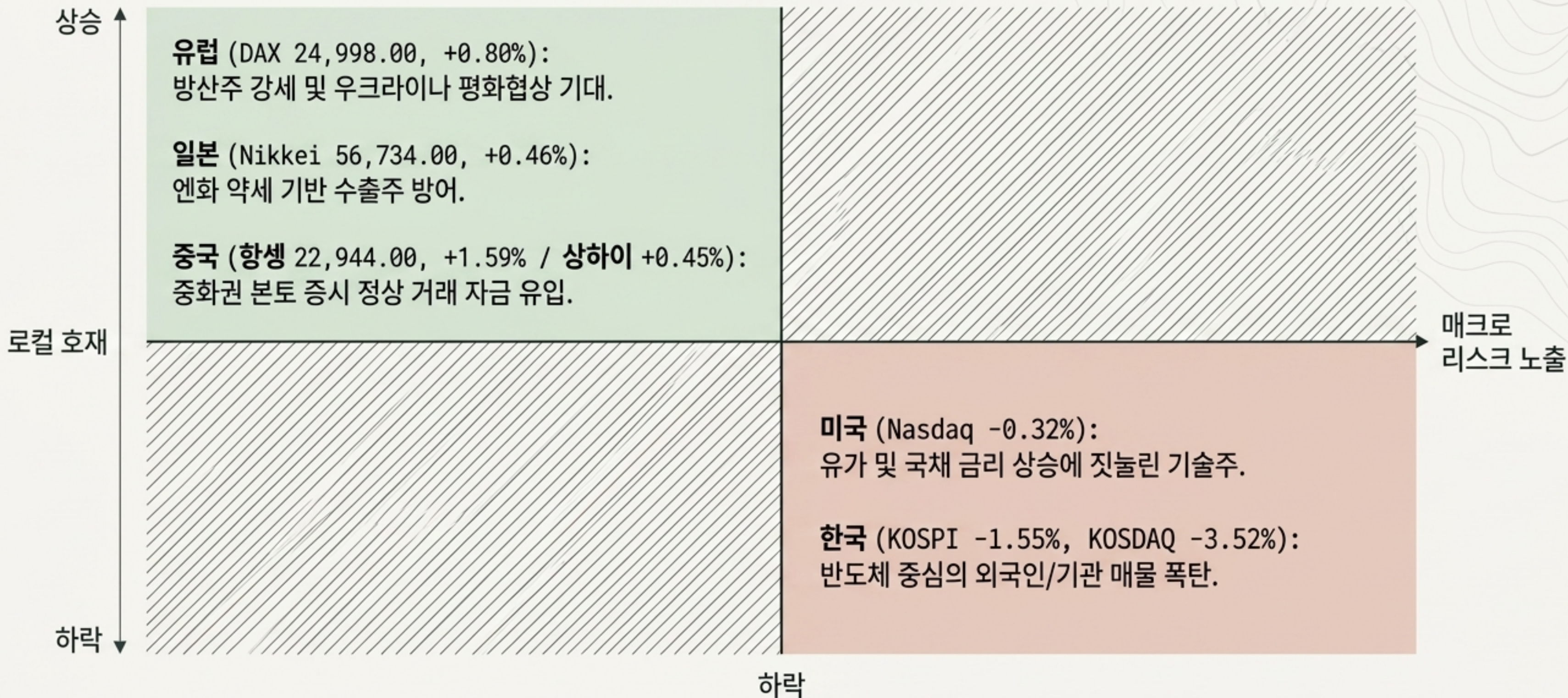
리스크 오프 장세 속 안전자산 및 대체자산으로의 자본 도피

자산 클래스 진단

자산	현재가 (변동)	시그널	주요 동인
금 (XAU)	\$24 (+\$18)	▲	개인 투자자 순매수 전환 및 안전자산 선호
비트코인	\$67,350 (+\$1,240)	▲	ETF 순유입 지속
달러인덱스	0.5 (-0.32)	▾	유로 강세에 따른 약세
원/달러 환율	₩1,412.08 (-5.30원)	▾	달러 약세 연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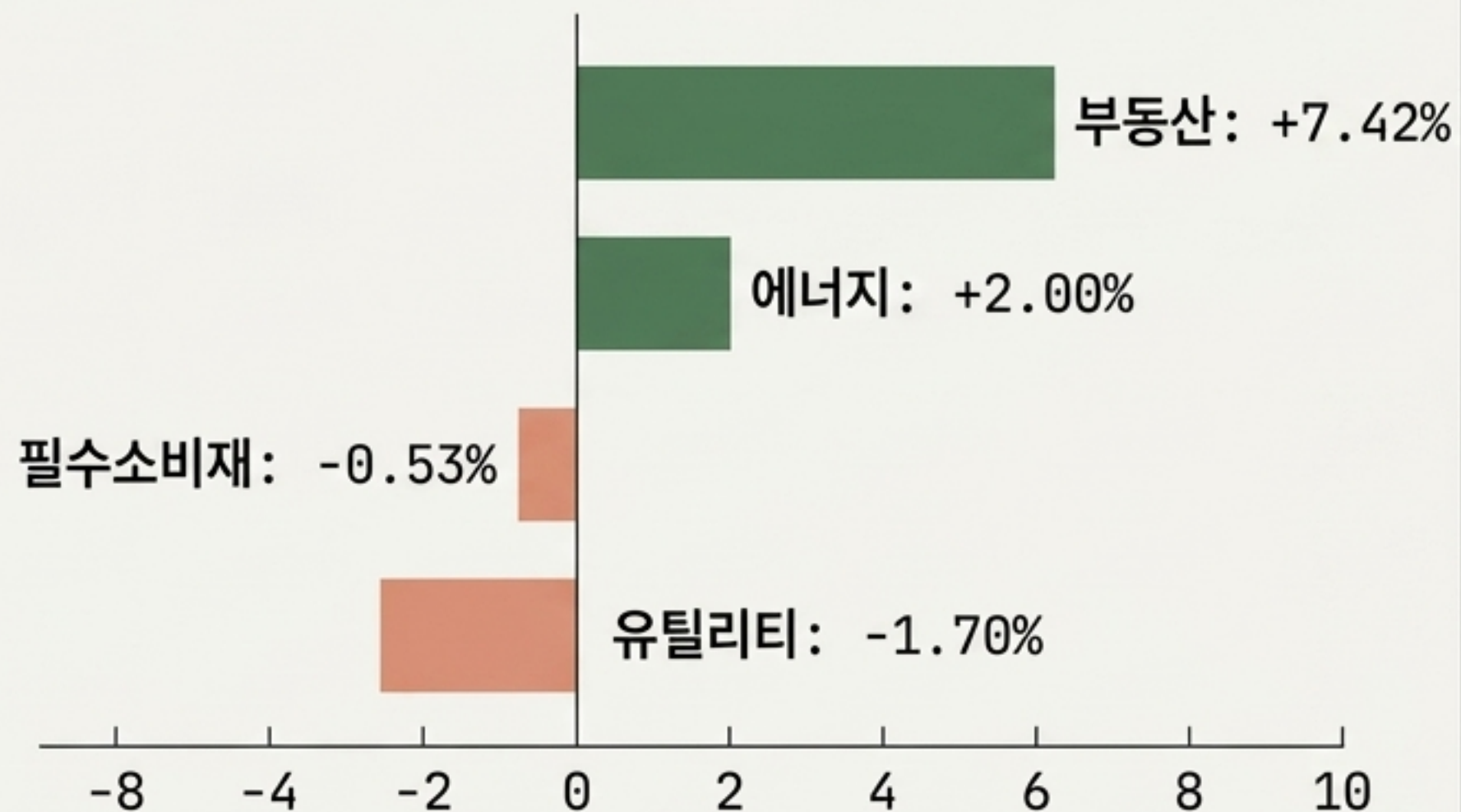
펀더멘털과 매크로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극단적 양극화



미 증시의 기술적 정체와 한국 서학개미의 레버리지 과열 경고

55%

S&P 500: 7,785.76 (+0.00%)



45%



BUBBLE WARNING

**한국 투자자들의 3배
레버리지 및 ADR 쏠림 현상
→ 월가 '버블 신호' 경고
(CNBC 보도)**

나스닥, 변동성 관리 및 유동성 확보 위해 12월부터 하루 23시간 거래제 도입 **박표**

7,200선을 터치한 직후 붕괴된 코스피, 매크로 악재에 무너진 전강후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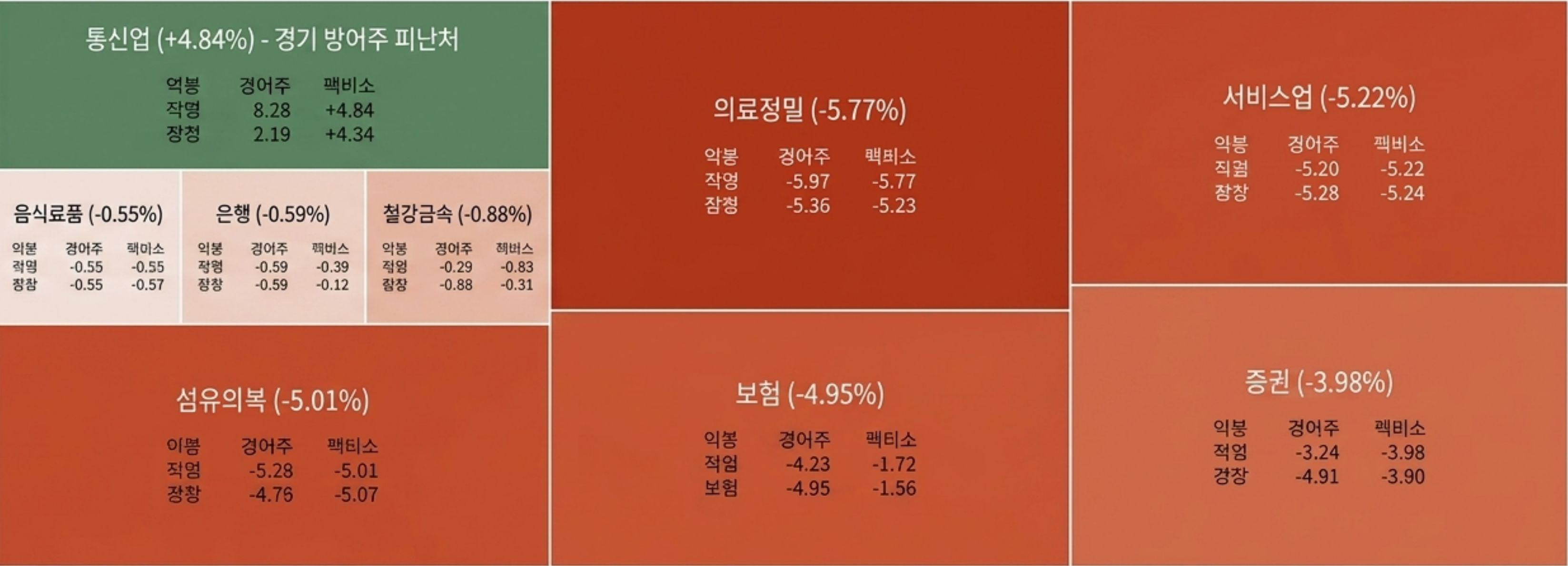


1.2조 원을 쏟아낸 기관의 엑소더스가 시장 전체의 하방을 주도하다



거래대금 및 거래량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메말라 있는 가운데, 기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전형적인 유동성 고갈 장세.

통신업을 제외한 전 섹터의 붉은 물결: 2차전지와 플랫폼의 붕괴



LG에너지솔루션 (-5.01%), 삼성SDI (-5.43%), NAVER (-4.82%) 등 2차전지 및 플랫폼 대형주 직격탄.

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의 괴리: 주주환원 기대감 vs. 과열 논란

삼성전자 (1569.7조 원) : 268,500원 (-2.19%)

SK하이닉스 (1214.1조 원) : 1,662,000원 (+1.03%)

0

[기대 요인]

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강조가 지수 방어와 추후 반등의 핵심 키로 작용할 가능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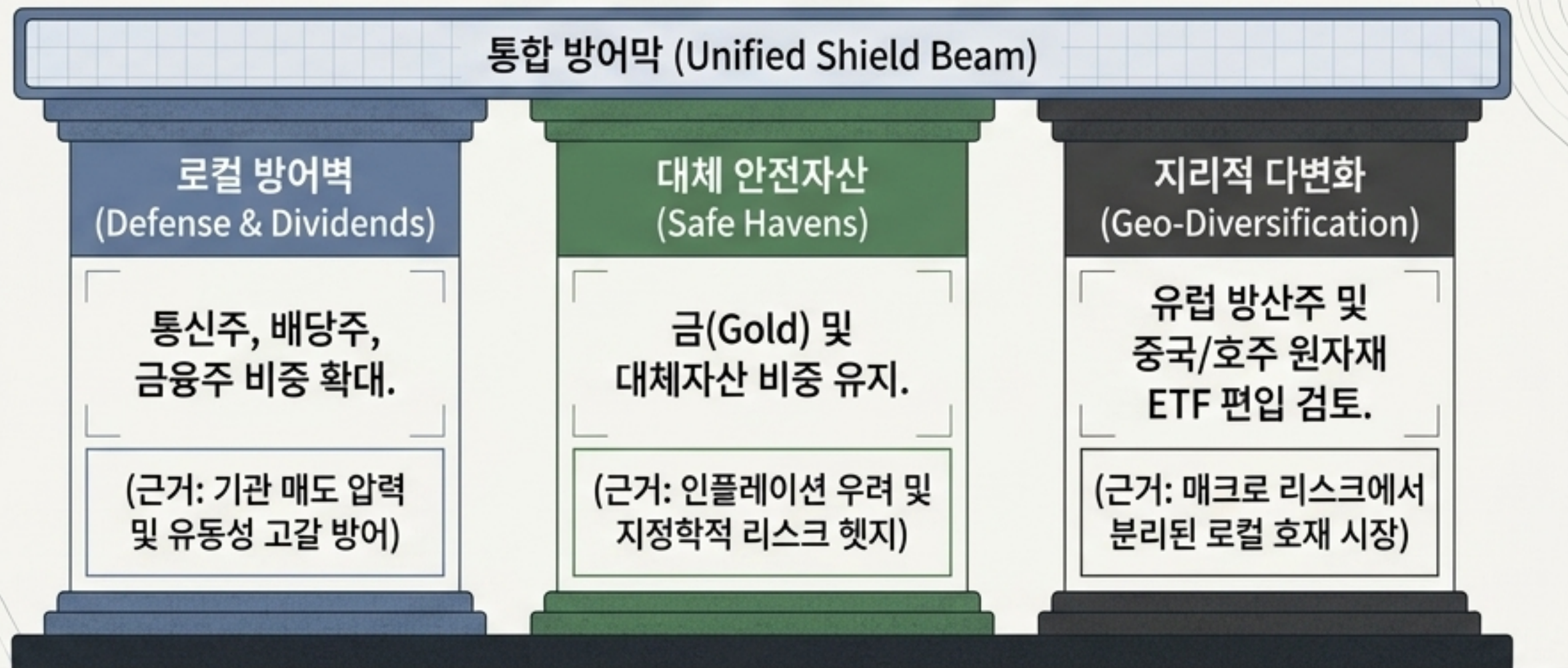
[리스크 요인]

SK하이닉스의 나홀로 상승은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미국 시장(ADR)을 통한 서학개미의 과도한 레버리지 매수세(거품 신호)와 연동되어 있을 위험 존재.

포트폴리오 전략: 변동성 실드 프레임워크 (Volatility Shield)

4·4·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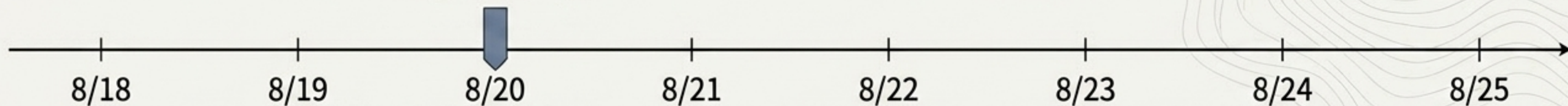
4·4·2 Asset Allocation Vault



개별 테마주나 기술주 올인을 멈추고, 현 하락장 속 자산 보존을 위한
‘4·4·2 자산배분’ 원칙으로의 즉각적인 회귀가 필요합니다.

주간 핵심 관전 포인트 및 다가오는 마일스톤

Aug 20 (목요일)



WMT (Walmart) 실적 발표

월마트 실적은 흔들리는 매크로 환경 속에서 미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예정입니다.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가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시장의 방향성은 매크로가 결정하지만, 생존은 자산 배분이 결정한다.